

TAEKWONDO TALK CONCERT



## 태권도 톡(TALK) 콘서트

---

2016.07.08 FRI

14:00 ~ 18:00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합동강의실

---

ISSUE 1 - 태권도, MMA에서 통할까?

ISSUE 2 - 태권도 전공생, 우리들의 고민은?

ISSUE 3 - 태권도 사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개 회 사



사랑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오늘은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와 태권도전문기자회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강렬한 태양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뜨겁게 달구는  
이 여름날에 국기원과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전국 각  
지에서 참석하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국기원과 태권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뜨  
거운 사랑은 태양의 강렬함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특히 오늘의 학술세미나를 준비한 연구소 소장과 연구원들, 그리고 태권도전  
문기자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후배님들의 노력을 통해 태권도는 전 세계에 보급되는 등 그 어떤 무예보  
다도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태권도의 고유한 가치를 연구하고  
표준화하여 전 세계에 보급시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국기원에서는 2006년에 태권도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태권도의 근간이  
되는 태권도교본을 연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의 결  
과를 논문집에 담아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을 지원받아 각종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학문적  
인 과제와 현실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태권도의 실  
전적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고 태권도 전공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태권도  
사관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학술교류의 장이 될 이번 학술세미나는 매우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또 자  
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  
다. 앞으로도 국기원은 이러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태권도 발전  
을 위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을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국기원장 원장 오 현 득

# 개 회 사



우리 일상생활 중 “특 까놓고 말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군더더기나 거짓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때 “솔직히 말해서”라는 뜻으로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 생활 속 대화와 소통 수단은 대부분 ‘특 (talk)’으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핸드폰에는 누군가로부터 ‘특’이 오고 있을 겁니다. 그 특은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세미나, 포럼을 하게 되면, 발제자나 토론자, 청중 모두 진지하다 못해 무겁습니다. 때로는 격식을 갖추다보니 진정 전해야 할 메시지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 동원돼 졸린 눈으로 시간을 버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 까놓고” 잠자코 시간만 지키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매년 상반기 하던 학술대회를 태권도에 관한 다양한 접근과 태권도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저희 태권도전문기자회에 주최, 주관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평소 태권도 학술대회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찾았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이슈가 무엇일지를 고민 끝에 ‘태권도의 실전성’과 관련한 것과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대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그리고 태권도의 지난 역사 사관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특 까놓고’ 얘기해보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태권도 특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태권도의 다양한 면을 공감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 되었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특 까놓고” 발제에 대해 토론 하십시오. 자유로운 토론과 다른 생각의 이해를 하기 위해 이 행사가 마련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네 시간 동안 진행될 태권도계 최초로 시도되는 ‘태권도 특 콘서트’에서 여러분이 한 주제라도 영감을 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16년 7월 8일



태권도전문기자회 회장 한 혜 진



# 2016 태권도 특(Talk) 콘서트 일정

## 개 회 식

개회식	국민의례
(14:00~14:10)	개회사 : 국기원장
	개회사 : 한혜진 회장(태권도전문기자회)

## 1부 : 태권도 사회&이슈

session 1.	[태권도&이슈] 태권도, MMA에서 통할까?
(14:10~15:00)	- 태권도의 실전적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
	• 발 제 자 : 박성진 기자(인사이드태권도)
session 2.	[태권도&사회] 우리들의 고민은?
(15:10~16:00)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발 제 자 : 박광범(태권도 전공생, 석사)

휴식시간 (16:00 ~ 16:15)

## 2부 : 태권도 사관 탐색

session 3.	[태권도&역사] 태권도 사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6:15~17:30)	- 태권도 기원과 유래에 대한 탐색 (전통주의적 사관과 수정주의적 사관 간의 논쟁)
	• 사 회 자 : 서성원 기자
	• 토론자 1 : 이창후 박사, 정근표 박사
	• 토론자 2 : 한병철 박사, 스티븐 케이프너 박사

## 3부 : 종합토론

종합토론	태권도전문기자단 외
(17:30~18:00)	• 청중과 함께 종합 토론

# 목 차

## [ 세션 1 ] 태권도&이슈

### 태권도, MMA에서 통할까? ..... 1

태권도의 실전적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

박성진(인사이드태권도)

## [세션 2] 태권도&사회

### 우리들의 고민은? ..... 10

태권도 전공생들의 고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 광 범(연세대학교)

## [ 세션 3 ] 태권도&역사

### 태권도 사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26

태권도 기원과 유래에 대한 탐색 (전통주의적 사관과 수정주의적 사관 간의 논쟁)

이창후(성균관대학교), 정근표(경희대학교)

한병철(씨크릿 트레이닝), 스티븐 케이프너(서울여자대학교)

**[session 1]** 태권도&이슈

# 태권도, MMA에서 통할까?

태권도의 실전적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

박성진(인사이드태권도)



# 태권도, MMA에서 통할까?

태권도의 실전적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

박성진 기자(인사이드태권도)

## [ 주제 ]

여러 무술들의 각축장인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태권도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가?

## [ 개요 ]

종합격투기에 관해 간략하게 개괄하고,  
태권도의 현 위치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태권도가 MMA에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한다.

왜 국내 태권도장에는  
어린이들만 있을까?



어린이들이 하는 것은 태권도인가?

과거의 태권도인들이

현재의 태권도 (세계대회 수준의) 를 보면서

개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권도는

다른 무술 유단자들과 만나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태권도의 자존심은 무엇일까?

태권도는 현존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화려한 발차기 보유

이종격투기의 시대가 지나간 현재의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태권도는 특별한 의미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서 주목 받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누가 있나?

태권도 발차기는 과연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나?

## [session 2] 태권도&사회

# 우리들의 고민은?

태권도 전공생들의 고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박광범(연세대학교)

# 태권도 전공생들의 고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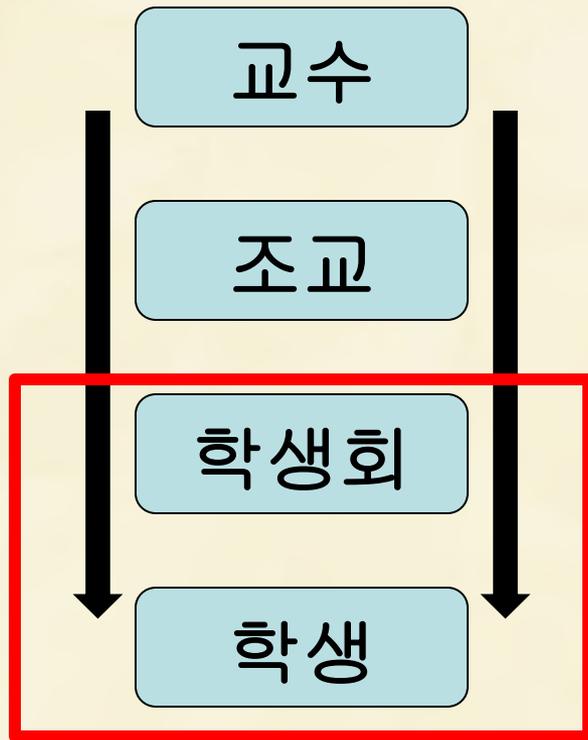
박 광 범(연세대학교)



“도대체 왜 그렇게 태권도에만 집착하는거냐?  
태권도는 다른 일을 하면서 해도 되잖아. 일단  
다른 일 하면서 돈 벌고, 학자금도 갚고, 결혼도  
하고 해야지.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에  
게 꿈이 무슨 소용이야. 눈앞에 닥친 현실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에 꿈을 꾸지.”

# # 1. 태권도 전공생이 되다

## 태권도학과의 위계



- 통제된 생활 강요
- 옷차림 규제, 행사참석, 집합
- 학생이 학생을 관리
- 선배라는 이름으로 억압

# #1. 태권도 전공생이 되다



Q.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면 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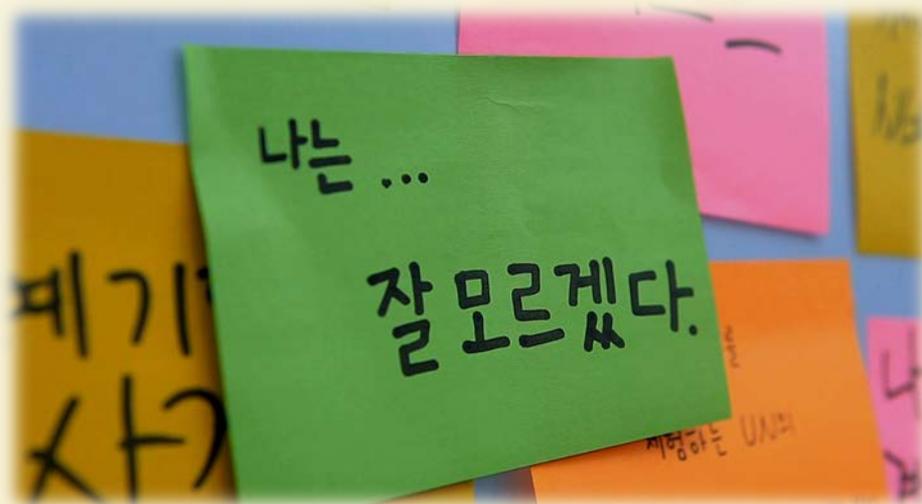
A. 학교는 절이 아니고, 학생은 종이 아닙니다

# #1. 태권도 전공생이 되다

“국내 태권도장은 포화상태다.”

태권도학과의 교육목표는 양질의 지도자 양성에 초점

학생들의 진로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됨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태권도학과생의 고민”(박광범, 2015)

2015년 6월,  
태권도 전공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논문 발표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은 총 5가지로 분류

1. 태권도 위상추락
2. 불합리한 학과규칙
3. 커리큘럼 부실
4. 구타 및 가혹행위
5. 진로선택의 한계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 1. 태권도 위상추락

“얼마전 A시태권도협회 비리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렴하지 못한 협회의 운영은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청렴한 협회의 운영이 필요하고 태권도인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 참여자 6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위에 계신 태권도라는 이름을 달고 계신 분들이 부조리를 일으킨다면 밑에 있는 후배들이 악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올림픽 종목에서 퇴출당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조차 그런 일이 자꾸만 발생된다면 태권도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조금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실한 규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파벌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판법 등이 심화되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참여자 4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 2. 불합리한 학과 규칙

“선택권이 거의 없는 수업,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수많은 행사들, 복장과 헤어스타일의 규제,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학과 규칙 등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주입식 교육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렇게 1,2학년 때에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없이 바쁘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려면 학교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학과에 소홀해지게 되고 소속감이 희미해지면서 또 다시 선후배와 트러블이 생기고 제가 처한 상황에 많은 회의를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참여자6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고, 학과에서 아싸(아웃사이더) 소리도 안 듣고 싶은데 출석인정이 안되면 성적이 안 나올 것이고 행사를 안가면 행사점수가 없으니 장학금 받는데 불리합니다.” - 참여자8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 3. 커리큘럼 부실

“태권도학과로의 진학은 도장과의 연장선상에서 태권도 실기 기능 유지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심도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 참여자 1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데 학문적으로나 실기적인 부분에서나 태권도 전공자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태권도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의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과목의 전문성과 계열성이 약한 것 같고, 교수학습법에서도 동기부여나 비전제시가 잘 되지 않습니다. 태권도학과의 재학중인 다수의 학생이 이런 공허함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참여자2

“전공 수업을 듣는데 사실 10개 중 2-3개의 수업을 빼고 나머지는 시간이 아까운 수업들입니다. 특히나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니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눈에 띄었고 가끔은 비싼돈 내고 이런곳을 다녀야하나 하고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 참여자5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 4. 구타 및 가혹행위

“선배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언어 및 신체의 폭력,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 참여자 6

“요즘 군대도 가혹행위가 없다고 하는데 태권도의 집합 문화는 군대에 있는 친구 또한 많이 놀랄 정도로 무의미하고 무가치 한 것 같습니다. 나이차가 겨우 한두 살 차이에도 선배라는 명목으로 후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참여자 8

## #2.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

### 5. 진로선택의 한계

“저는 조금 힘든 학과생활을 보내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비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어서 앞으로 후회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태권도학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지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 6

“미래에 무엇을 할지가 고민입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저 출산 시대가 오는데 지금 한국의 도장은 유아체육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관원수는 계속해서 줄어든 것이고 태권도만 한다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다른 공부를 많이 안한 것도 후회됩니다.” - 참여자 8

# #3. 태권도전공생들과 논쟁

## Q&A

### 질문

- ▶ 태권도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기사나 내용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학과규칙이 없으면 학과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
- ▶ 구타 및 가혹행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

### 답변

- ▷ 태권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기사가 노출되어야 부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 ▷ 학과운영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사 잘하기? 행사 비 잘 내기?
- ▷ 어느 정도라는 것의 기준이 있는가? 구타는 10대 이하? 머리박기는 10분 이내?

# #3. 태권도전공생들과 논쟁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과행사에 모두 참여하고,  
야간에는 동아리 운동도  
열심히, 밤에는 선배들이  
부르는 술자리에 모두 참  
여하는 학생

학과행사에 모두 불참하고,  
동아리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계발을 위해 영  
어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어떤 학생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답은 없다.

그러나 태권도전공생들은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 #4. 개인적 바람들

사람은 아는만큼 생각한다.

태권도 전공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다양한 경험을 쉽게 쌓을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책'이다. 책 한 권에 작가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 교훈이 다 담겨있다.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한다.



# #4. 개인적 바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일 당장 영어학원에 가서 기초반을 등록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길게 써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기감과 조급함을 느껴봐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속에 생겨나는 변화에 주목하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느꼈던 진로 고민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하고 싶은 것이 생겨도 취업난 때문에 힘들 수는 있다...)

# 사랑이 희망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현재 전공생들과 졸업생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권도 전공생의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해결하는 것이 태권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ession 3] 태권도&역사

# 태권도 사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태권도 기원과 유래에 대한 탐색(전통주의적 사관과 수정주의적 사관 간의 논쟁)

이창후(성균관대학교), 정근표(경희대학교)

VS

한병철(씨크릿 트레이닝), 스티븐 케이프너(서울여자대학교)

# 태권도 역사에 대한 논리,실증적 주장

발표자: 이창후, 정근표

## 1. 태권도 역사: 논리, 실증적 접근

- 실증적 접근 : 막연하게 태권도에 대한 맹목적 애정이나 혐오, 혹은 편견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해해야 함
- 논리적 접근 :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과 같은 수준의 논리적 방식으로 태권도 역사를 이해해야 함

## 2. 논리, 실증주의적 이해의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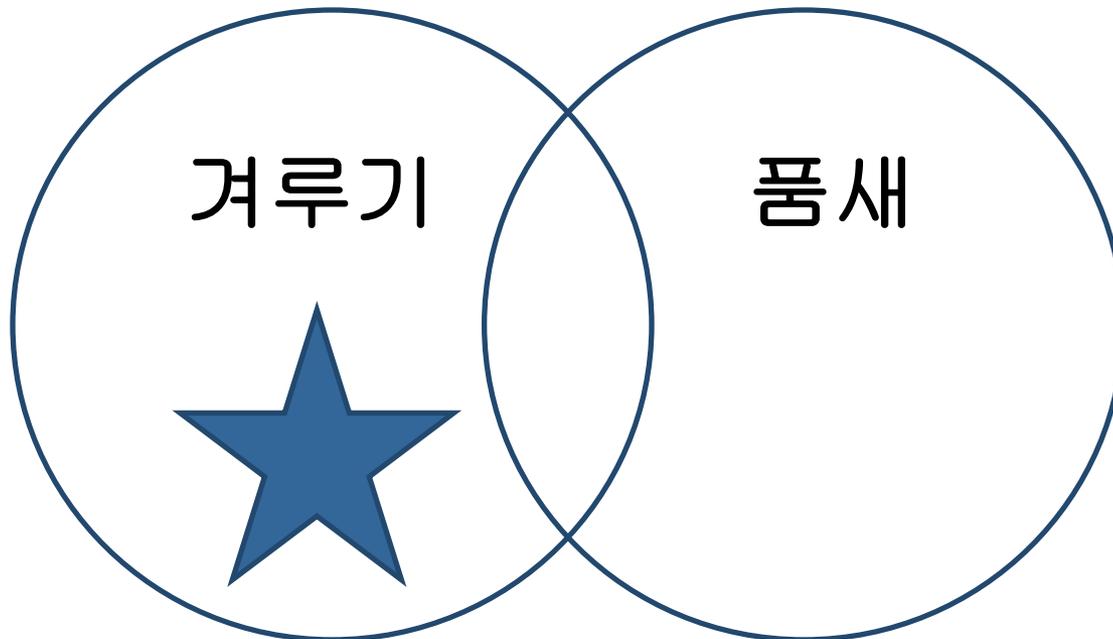
- 1> 태권도는 택견이 현대적으로 전승되어 발전한 무예
- 2> 태권도 발전에 가라데와 중국무술 등도 영향을 주었지만, 태권도의 무예적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택견

### 1. 태권도의 정체성

- ◆ 태권도의 정체성은 다른 무술과의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
- ◆ 태권도의 정체성(특징) : 일본어와 다른 한국어의 특징 주어나 술어가 있느냐의 특징이 아님  
구체적인 느낌과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정체성
- ◆ 공통점을 정체성으로 간주하면: 역사 논의는 무의미.

### 1. 태권도의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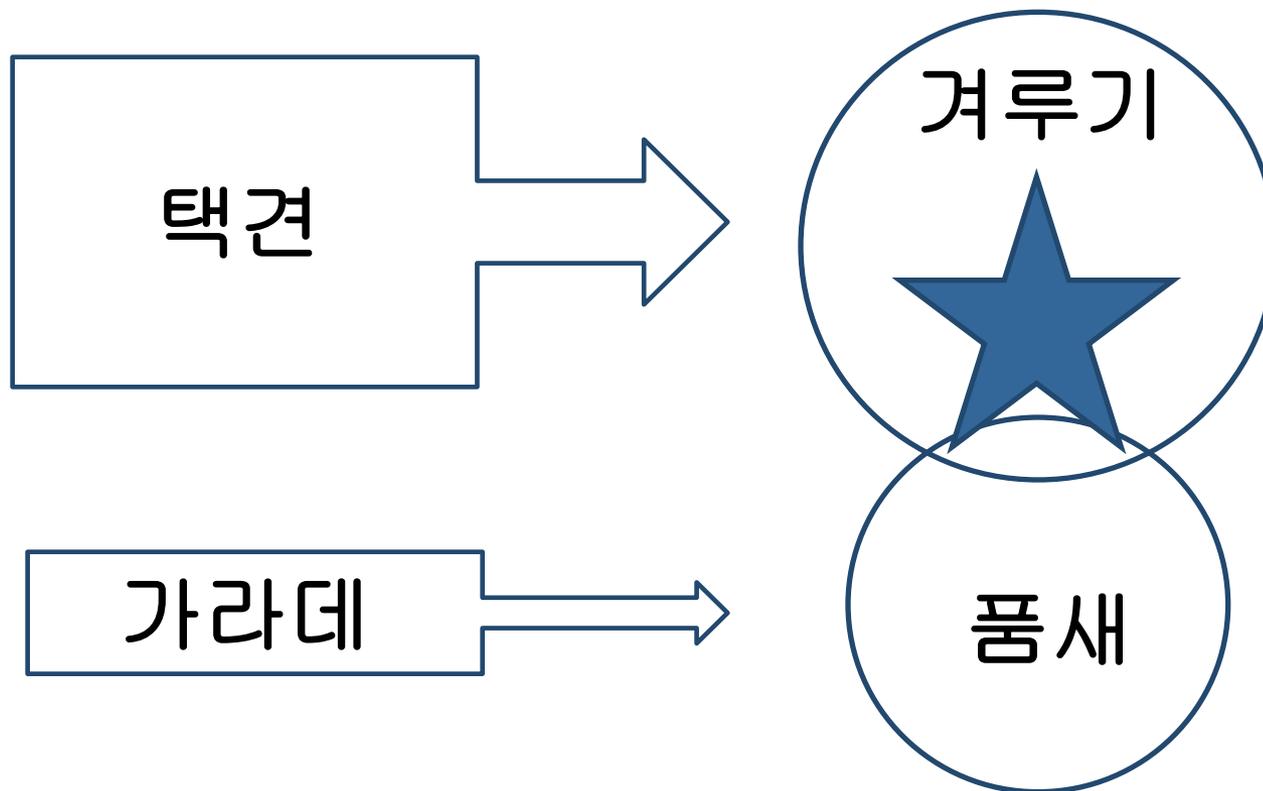
- ◆ 태권도의 무예적 정체성은 ‘품새’가 아닌 ‘겨루기’ 기술



## 2.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의 구분

1. 태권도 ‘겨루기’ 기술 체계와 ‘품새’의 기술 체계는 매우 이질적이다.
2. 태권도 정체성에 따른 역사
  - 1) 겨루기: 태권과 매우 비슷 ← 가라데 유입론자도 인정
  - 2) 품 새: 가라데 품새와 많이 비슷 ← 가라데 품새의 짜깁기
3. 겨루기 중심의 태권도(정체성)는 태권에서 왔음.

- 정체성과 태권도 역사의 정리



## 3. 태권과 태권도의 전승과정의 문제

- 1) 흔한 오류: 태권도 초대 관장들 일부가 가라데 수련자들이었다.
- 2) 반박: 그 분들이 실제로 태권도 지도를 하지 않았다. 예) 이원국씨: 1주일에 1-2번 도장 방문
- 3) 실제 전승: 민속 무예 태권은 민속 무예가 전승되는 방식으로 전승됨(동네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하며 전승)

#### 4. 무협지적 환상에서 깨어나라!

- 1) 무협지: 비전 무술을 품새 중심으로 배운다. → 한국 현실과 매우 다름
- 2) 민속 무예 태권: 송덕기 옹도 동네 형들 따라 하면서 배움
- 3) 사례들: 엄운규, 이승완, 최영렬 등의 현대 태권도 기술의 원류들은 사범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개발했음. → 여러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

한국어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습득함

## 5. 기타 반론과 재반론

- 1) 그래도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은 일본 가라데 수련자 중심?
  -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태권협회를 만들면 태권이 일본 무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태권도 정치사와 태권도 문화사를 구분해야 함
  
- 2) 옛날에 태권도인들은 모두 ‘당수도’, ‘가라데’한다고 말했었다.
  - 당시 ‘당수도’라는 용어는 ‘무술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임:  
<권법교본> 참조
  
- 3) 태권도인들의 족보가 가라데 유파에 다 남아있다.
  - 이성계 고조부(이안사)가 몽골에 귀순해 다루가치였다고 해서 조선이 몽골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6. 태권도 역사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 1)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 많은 가라데 유입론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단편적인 사실만을 강조한다.

### 2)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복잡하다. 복잡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 태권도 품새, 일부 태권도인들의 가라데 수련 경력만으로 단순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 3) 태권도 정치사와 태권도사를 구분해야 한다.

- 사람들의 계보는 파악하기 쉽다. 이것만 가지고 태권도라는 무예문화의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태권도의 기원과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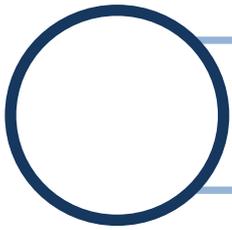
발제자 Ph.D. 한 병 철

태권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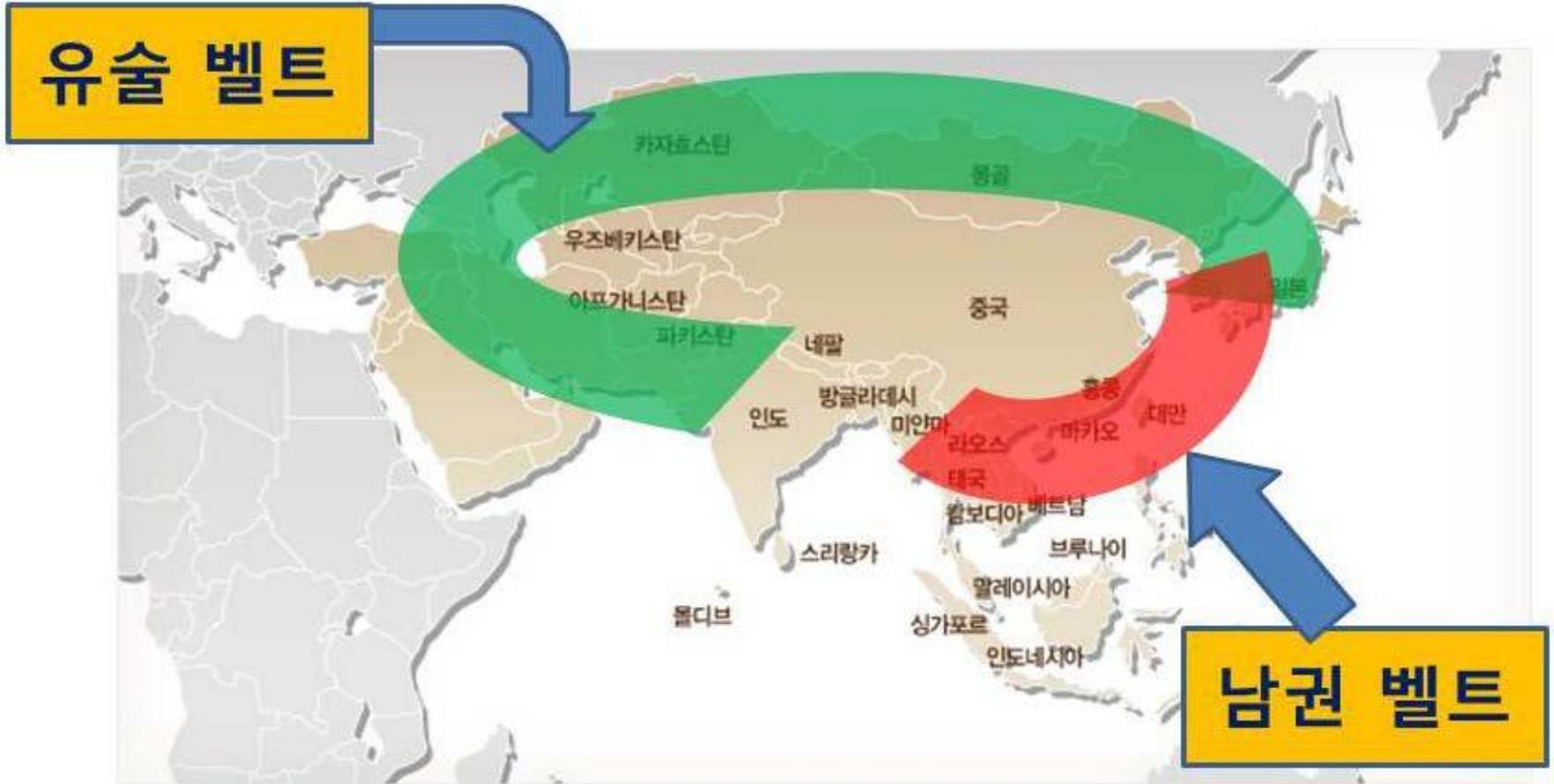
한국의

대표무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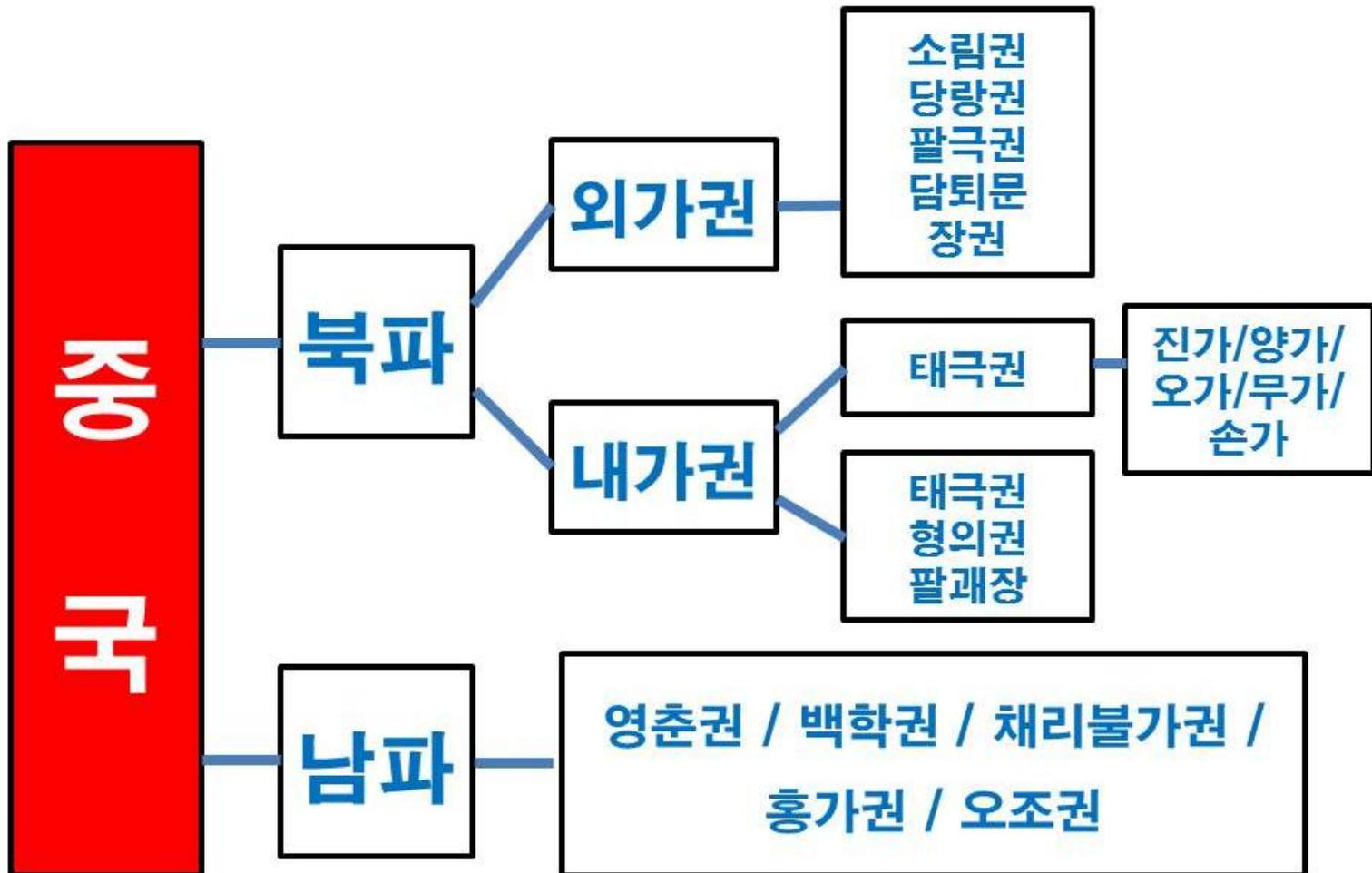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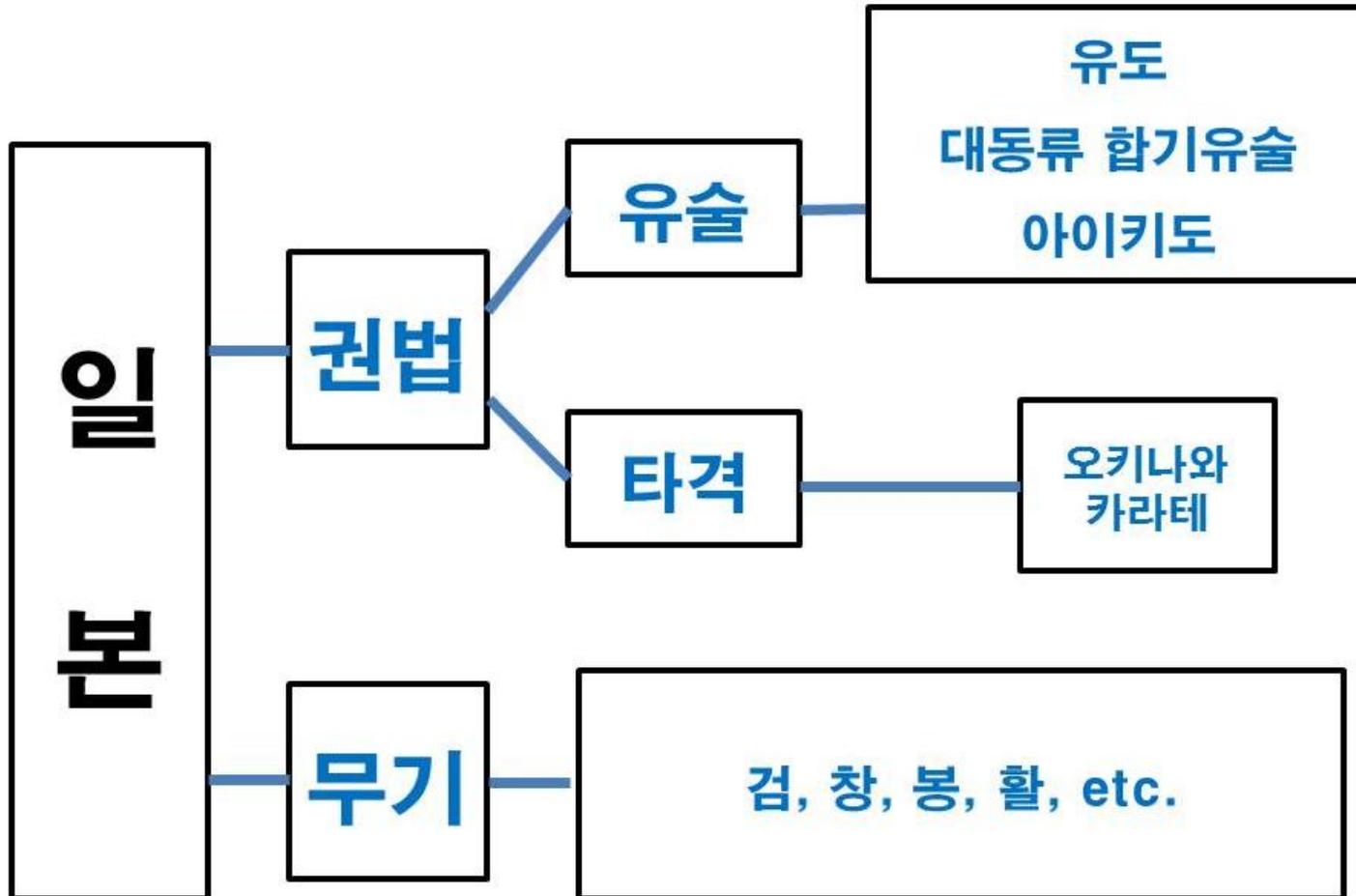
# 세계무술의 양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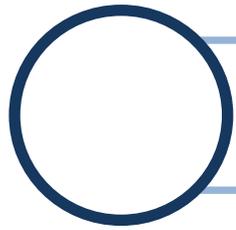


# 중국 무술의 계보



# 일본 무술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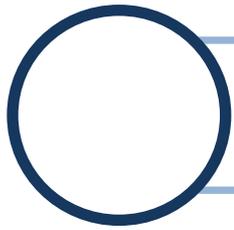




# 무술의 유전자 요인



1. 기본자세
2. 서기
3. 기합 & 발성
4. 스탠스
5. 보법
6. 기본 기술



# 태권도에 각인되어 있는 근본 유전자



**1. 기본자세**

**주춤서기, 앞굽이, 범서기 등등**

**2. 서기**

**3. 기합 & 발성**

**기합이 존재**

**4. 스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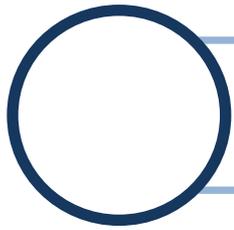
**장교대마 / 단교협마 공존**

**5. 보법**

**가라테와 북방권법의 보법 혼재**

**6. 기본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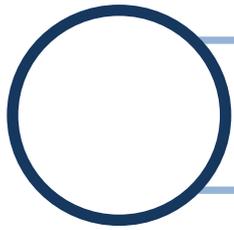
**가라테와 북파권법 기술 혼재**



# 태권도는 어떤 무술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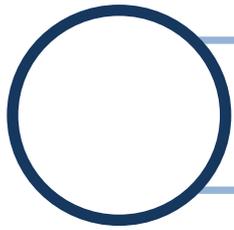
1. 북방계는 유술이 대세이고, 남방계는 타격계 무술이 대세
2. 오키나와 카라테는 남방 타격기의 한 부분이며,  
태권도는 카라테의 힘의 원리를 차용
3. 태권도는 한반도에서 북방계 무술의 신법과 보법을 채용  
하여 발전
4. 태권도는 가라테와 중국무술을 차용하여,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현대무술이자  
스포츠



# 태권도와 택견은 관계없다



1. 택견은 유술
2. 유술은 상대의 중심을 허무는 것
3. 택견과 태권도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음
4. 택견은 무술스타일 민속놀이이며,  
서울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현상
5. 태권도는 택견과 아무 관계 없음



# 태권도 정체성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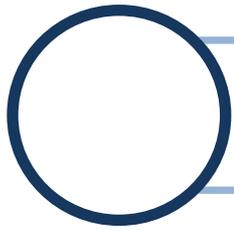
## 태권도는

일제강점기에 유입된 오키나와 가라테가

중국북방권법의 일부 기술과 혼합되어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서 독자 발전한

**대표적인 한국 무술**이자 현대스포츠



# 태권도사 연구에 대한 제언



1. 역사에는 연속과 단절이 있다.
2. 한민족 무술사와 태권도사는 다른 것이다.
3. 태권도사는 해방 이후부터 연구해야 한다.
4. 아시아 모든 무술의 역사를 태권도사로 도치시키면 안된다.
5. 태권도 과거역사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이용된다.

**태권도는**  
**단군이래 최고의**  
**한류상품/대표무술**

## 2016년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학술세미나



**KUKKIWON**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32, Teheran-ro 7 gil, Gangnam-gu, Seoul, Korea 135-908  
Taekwondo Research Institute, Kukkiwon  
Tel : 82-2-553-5651 Fax : 82-2-3469-0189  
E-mail : [research@kukkiwon.or.kr](mailto:research@kukkiwon.or.kr)  
Homepage : <http://www.kukkiwon.or.kr> <http://research.kukkiwon.or.kr>